



남원시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거동불편 해소는 물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 보행보조기 지원

읍면동 신청...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한해

남원시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거동불편 해소는 물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고 있다.

보행보조기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시거나 먼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와 수납가방이 부착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한 주차브레이크 장착으로 사용이 편리해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보행보조기 지원 선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의 A, B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에 무릎이나 관절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며 신청 방법은 읍면동에 신청을 하거나 사회 복지상담공무원이 직접 발걸음을 돌리거나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는 현재까지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 6백73대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보행보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추석연휴 종합대책 마련 추진

쓰레기·상하수도·교통·의료·가스 대책반·종합상황반 등 운영

순창군이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귀성객과 주민을 위한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편안한 추석나기에 나섰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5일간 7개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7개반은 쓰레기대책반, 상하수도대책반, 교통대책반, 의료대책반, 재난대책반, 물·가스 대책반, 종합상황반이다.

특히 순창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상시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보건소 및 진료소 27개소도 2/1씩 근무한다.

또 당직 병의원 24개소, 당번양곡 10개소를 일차별로 지정 운영해 응급환자 및 일반환자의 진료 공백방지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상황실도 운영한다.

비상병의원 및 약국에 관한 문의는 660-522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또 귀성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석연휴 동안 현행 1일 5회 운영 중인 서울행 고속버스를 1일 7회로 증편하고 인천행도 17일에는 2회로 증차 운영할 계획이다.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이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연휴기간 동안 강진산을 무료 개방한다.

지난주에는 공무원과 행복홈 입양 민간단체 47개 1,000여명이 추석맞이 환경 정화활동을 진행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고향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공을 들였다. 쓰레기수거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황숙주 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고향에서 머무는 동안 최대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한 만큼 기간에 정을 듬뿍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추석연휴 장애인 전용 불법주차 집중강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정부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지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 및 홍보를 오는 추석연휴를 맞아 집중 강화한다고 최근 전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는 '주차가능'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

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7월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부과제도와 관련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차방해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는 ▶전용주차구역 내, 앞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 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

역 표기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차장 입구 또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비합리한 주차문화가 확산될 때까지 집중단속을 통하여 보행 상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이용 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주기적으로 계도 및 홍보하고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연휴기간 의료기관·휴일지킴이 약국 지정 운영

관내 14개소의 병·의원 등

임실군은 추석 연휴기간 응급환자 및 일반 환자의 진료 편의 제공을 위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에 나섰다.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추석 연휴기간에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반 및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관내 14개소의 병·의원 등은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원활한 의약품 구입을 위해 휴일지킴이 약국 13개소를 운영하고 일부 편의점에서도 종합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 6가지 안전상 비의약품을 판매한다.

군 관계자는 "연휴기간 진료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빈틈없는 비상대책을 수립했다"며, "즐거운 추석명절을 위

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129 보건복지콜센터, 군 보건의료원 비상진료대책상황반(☎063-640-3110)에 문의하면 응급조치 및 당직의료기관, 약국 등을 안내 받을 수 있고, 더 자세한 것은 군보건의료원(http://bog.u.nimsi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한돈협회, 돼지고기 전달

추석 맞아, 관내복지시설 19개소 등

대한한돈협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유영수)는 지난 8일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고창군 희망복지지원단에 400만원 상당의 한돈(돼지고기)을 전달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전달받은 400만원 상당의 한돈(돼지고기)을 지역아동센터와 무료경로식당, 관내 사회복지시설 19개소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주)한빛원자력분부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42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상하면에 전달했다.

상하면은 전달받은 생필품을 면내 저소득 가정 70 곳에 전달해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했다.

아산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협의회장 박호인)는 지역 내 소외계층 및 한부모가정 등 5세대 가정을 방문하여 20만원 상당의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수면 조명순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이·미용 봉사사를 실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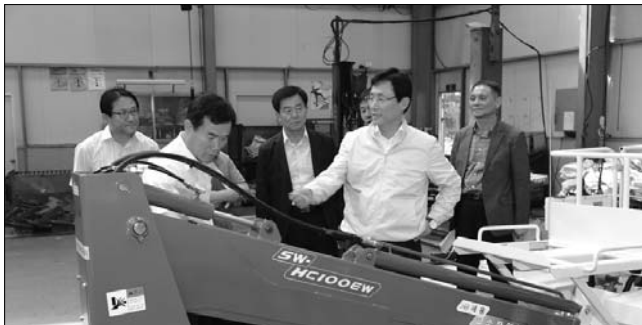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면내 마을회관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집에 방문해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고창군 공직자들은 조순가정 등 저소득가정을 방문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군 각 실과소 팀장 이상 공무원들은 저소득아동과 1:1 결연을 맺고 평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명절을 앞두고 위문품 등을 준비해 격려하고 나눔 분위기를 확산에 동참했다.

또한, 고창읍(읍장 신학준) 직원들은 1:1 결연된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결연을 맺어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 기업 현장 소통행정 전개

이환주 남원시장(시장 박우정)이 기업 현장에서 근로자와 소통행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남원시 광치동 농공단지내 (주)세우를 방문해 근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을 추진해 신뢰와 화합을 도모하였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주요 생산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승하기도 했으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마음 깊이 담아둔 여론을 청취했다.

근로자들은 근무하면서 느꼈던 애로

사항이나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세우 대표이사 김종규는 "오늘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여 시장님께서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경청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으며

이환주 시장은 "격식없이 편안하게 근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여 더 큰 남원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노인복지관, 호나눔 행사

임실군노인복지관(관장 한갑수)은 지난 9일 추석을 맞아 지역 어르신 25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호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임실군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노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식전 공연 및 기념식에 이어 난타, 필봉농악 등의 문화공연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어르신들의 흥을 돋웠으며,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점심과 기념품을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명절이 예전 같지 않아 쓸쓸하게 보낼 줄 알았다"며,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려 마음의 위로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갑수 관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솔선수범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추석 명절을 대비해 재난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9일 군 재난안전과는 고창소방서와 연계해 1개반 7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추석연휴 귀향객들과 지역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고창터미널 외 10개소에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전반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실시해 명절 화재 및 각종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군은 나머지 시설들도 오는 12일까지 집중 점검하여 재난위험요소 사전 제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추석 연휴 중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군민의 재산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 다문화가정 위문 격려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썬치파출소(소장 서정선)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불우한 환경과 소외감을 이겨내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썬치면 운압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은 결혼 9년차로 지난 5월초순 원인 미상으로 주택이 완전 전소되어 당시 마을회관에서 생활 해 오다 현재는 아는 지인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썬치파출소장과 직원들은 오미자 수확을 하고 있는 A씨의 집을 살펴 리면을 전달하고 주택신축과 아이의 교육, 애로사항 등 상담을 통해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서정선 소장은 "경찰관이 지역치안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돕고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며,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40여 세대와 독거노인, 장애자 등 소외감 있는 주민들이 삶의 질곡이 없도록 최대한 보살피는 공감치안활동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흥부제 추진상황보고회 열려

세부계획·개선방안 논의

다가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제24회 흥부제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추진상황보고회가 지난 8일 시청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진석 제2위원장, 이환주 남원시장, 임실군 공무원, 제2위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세부추진계획이 보고됐고, 장애요인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흥부제는 시민 모두가 참여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함께 만드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문화나눔장터, 현열나눔, 흥부사랑 비빔밥?나눔 행사 등 흥부본연의 정신인 나눔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행사 첫날인 10월 7일은 인월, 아영에서 교류제를 개최하며 농번기에 따른 주민불편은 최소화하기로 하였고, 기념식은 시립어린이 합창단의 뮤지컬 흥부, 흥부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 등 흥부컨셉을 강화하고 아울러 인기 가수와 함께하는 시민화합 한마당도 벌인다.

아울러 흥부추진에 맞게 관내 기관·단체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민속국악원, 농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대중가수와 함께하는 흥부놀이부흥마당, 흥부골남원농악경연대회, 전통회화전 등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가 제공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